



Soft Shelter

문의 Space B-E 갤러리 (02)540-6650 spacebe.co.kr
 이미지 제공 Space B-E 갤러리

수입타일 전문업체 윤현상재가 운영하는 Space B-E 갤러리에서 패브릭(fabric)을 주제로 한 전시 <Soft Shelter>가 개최된다. 전시는 사람과 가장 빈번하게 접촉하며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아련한 기억을 품은 이 소재의 매력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.

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소재에 가장 친근함을 느낄까? 한 생명이 탄생하기까지 엄마의 뱃속에서 열 달을 머물다 세상 밖에 나올 때 우리는 준비한 담요에 아이를 꼭 감싼다. 사람이 태어나 처음 접하는 소재 '패브릭'. 이 보드랍고 유연한 재료는 어찌 보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운명적으로 만났기에 익숙함과 더불어 그 의미 또한 더 깊어지지 않았나 싶다.

이처럼 패브릭은 인간의 몸으로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쉼터(shelter)의 역할을 하며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기능뿐 아니라 지친 우리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위로의 소재이다. 의류는 신체를 감싸고 보호해 주어 네 계절을 즐기게 해주는 삶의 조력자이다. 태양 빛을 차단해주는 다양한 소재의 윈도우 패브릭은 쾌적한 실내 생활을 가능하게 하며, 고단한 하루의 일과는 포근한 이불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곤 한다.

이번 전시는 패브릭을 주 소재로 작업하는 작가들과 그들의 작업이 삶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대화하며 각자의 에피소드를 담아본다. 삶은 지나고 보면 다 이야기의 집합체인 것 같고 우리는 그 기억을 패치워크처럼 이어가며 살아가는 것 아닐까? 나의 이야기를 너의 이야기처럼 공감할 수 있는, 울고 웃고 힘들고 행복했던 기억을 그러모아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이 쉼터 안에 포근한 마음들을 담아보자. 전시는 17일까지 이어진다.

패브릭, 일상 속 포근한 쉼터

